

사랑하는 그녀, 어느날 미팅을 나갔다. 둘 사이
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자리잡았다.
“나 사귀는 사람 생겼어...” 눈 아물이 뿔었다.
희색빛 땀방울이 떨어진다. 방향성 없이 흐르는
손등. 눈앞만 바라본 갈지자 인생.
부순다. 그러면 선을 따르지 않으리. 내비가
알파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번 주 주제
선(Line)

◇Free Style은 이론적인 접근보다 감성적 접근을 통해 깨어진 대화문화를 조명해 보고자 기획한 테마신문입니다.

◇Free Style에 격주 게재되는 '경희의 이름으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대학주보

12

1998년 4월 13일 월요일

테마신문

Free style

서, 자유로움, 생성과 파괴의 딜레마

우리의 시선에
사로잡힌 선



지휘자 장윤성

시간의 선에는 틀이 없다

지휘봉 끝의 섬세하고도 화려한 아름다움. 그 동선의 조화가 연출해내는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지휘자의 혼이 담긴 선의 예술이다. 과연 그들에게 선이란 어떤 의미인가.

현재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수석객원지휘를 맡고 있는 장운성(기악과 교수) 지휘자에게 선의 활약을 들어보았다. 난파탄생 100주년을 맞아 올해의 난파음악상을 수상한 그는 지휘라는 것이 계속 선을 그리는 작업이긴 하나, 어떤 모양의 선을 그리는지와는 전혀 다르다. 자신은 인식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라 한다. “중요한 것은 지휘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입니다. 단적으로 볼 때 지휘의 선구기란 정확한 속도의 표시이죠. 점과 점사이의 속도감, 즉 어떤 빠르기로 연주해 줄 것인가 하는 것. 서로의 호흡이 맞아야 하거든요. 다만 박자라든가 엇갈리게 되면 오케스트라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휘에서 선곡기의 정형화된 틀은 없다. 그저 서론이 어긋나지 않을 정도만으로 충분하다. 물론 보다 단정하게 연주하여야 할 부분은 곡선형태의 선으로, 격렬한 부분은 직선형태의 수직선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일정 단계를 밟아서면 어느 순간 전혀 다른 모습의 지휘가 나타난다고 말한다. 음악의 색깔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일정 틀은 깨져버리고, 선에 무게를 실어서 때로는 굵고 무거운 선을, 때로는 가볍고 작은 선을 그린다. 이제 속도만을 나타내던 선은 창조적 선이 되고, 리드의 선이 된다.

“도화지에 그리는 선을 평면의 선이라고 한다면, 출사위의 선은 공간의 선이라고 할 수 있겠소. 그리고 지휘의 선은 시간의 선입니다. 음악이 시간 예술인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라며 장윤성 지휘자는 끝을 맺었다. (김현중 기자)

〈김현종 기자〉

구조물 속 삼베 단기 선의 운동

10. 2005년 12월 15일
 11. 2005년 12월 15일
 12. 2005년 12월 15일
 13. 2005년 12월 15일
 14. 2005년 12월 15일
 15. 2005년 12월 15일

[illegible][illegible]

1000

건축가 미운다



124
 123
 122
 121
 120
 119
 118
 117
 116
 115
 114
 113
 112
 111
 110
 109
 108
 107
 106
 105
 104
 103
 102
 101
 100
 99
 98
 97
 96
 95
 94
 93
 92
 91
 90
 89
 88
 87
 86
 85
 84
 83
 82
 81
 80
 79
 78
 77
 76
 75
 74
 73
 72
 71
 70
 69
 68
 67
 66
 65
 64
 63
 62
 61
 60
 59
 58
 57
 56
 55
 54
 53
 52
 51
 50
 49
 48
 47
 46
 45
 44
 43
 42
 41
 40
 39
 38
 37
 36
 35
 34
 33
 32
 31
 30
 29
 28
 27
 26
 25
 24
 23
 22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무용가 김민아

[illegible]

(간지)로 신을 나타내는 복숭아, 우렁치개
등은 무덤과 관련된 것과 고종의 한가
이 밤에 거는 것은 조선 왕조의 전통인
이런 것들은 모두를 통해 지극히 이치와
기분으로 되고 부끄러운 것을 청초해 내는 자
이다. 이때 적당히 신의 힘을 신을 그려 보았
다. 신과 신의 기술이 되는 신들은 어느 순간
나서 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때 신들은
같이 기쁨의 의미를 담는다. 슬픔은 강
한데 끝없는 것이 신을, 신을 함께 하므로
하는 신을 만들어도 되고 기쁨하는 신들에게

조이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한숨을 쉰다. 한숨이 지어진다. 항상 슬픈 생각만 떠오르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통의 것이 아니겠는가. 큰 나무 밑에서 쉼을 취하여 나뭇잎의 그림을 즐기는 것은 나무 아래에서의 일. 동물들을 모아있는 구름같이. 나무를 주는 것이 넓게 만졌다는 것은 봄, 정월, 가을, 모든 계절을 일제 재가! 인생 그러비. 인생은 수고 있는 일로. 다른 세상을 보는 그녀의 시선이 고여있다.

그녀의 오사비 신들 속에 보곤히 입힌 꽃어
자, 꽃대를 통해 일신하고 있는 신들을 느껴보
일개 조물배인지, 부, 하교, 《칠수운 기지》

〈정수원 기차〉

